

Vision Report

SYNOD OF THE NORTHEAST
5811 Heritage landing | 2nd Floor | East Syracuse, NY 13057
(315) 446 5990
www.synodne.org

| | |
|---------------------------------|--------|
| 서문 | 3 |
| 우리의 신학적 관점 | 4 |
| 분별 과정 | 5 |
| 추가적인 방향성 정렬 | 6 |
| 핵심 기둥 | 8 |
| 신학 및 영성 형성 | 9 |
| 거버넌스 (조직 운영) | 10 |
| 보조금 지원 (Grants) | 14 |
| 협력 (Collaboration) | 16 |
| 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 18 |
| 지역 학습 (Regional Learning) | 20 |
| 노회와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역 | 21 |
| 로버트 L. 워싱턴 장학생 프로그램 | 22 |
| 소형 교회 레지던시 프로그램 | 23 |
| 커뮤니티 조직화 코호트 | 25 |
| 시노드 전체 위임목사 교육 프로그램 | 26 |
| 초기 사역 연구소 (EMI) | 27 |
| 중간 공의회 리더십 경로: 차세대 리더를 위한 기초 과정 | 28 |
| 옹호 및 이민 테스크포스 | 29 |
| 네트워크 코칭 및 중재 지원 | 30 |
| 다음 단계: 실행 및 평가 계획 | 31 |
| 실행 및 평가 팀 | 32 |
| 감사의 말 | 34 |
| 부록 | 35 |
| 조직 및 인력 구조 | 36 |

소개

미북부 대교구(Synod of the Northeast)는 지금 그 사역과 증언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기도, 분별, 그리고 협의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를 새롭게 상상하기(Reimagine the Church in the World) 위한 부르심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에 더욱 신실하게 응답하며, 미북부 전역에서 용기와 자비, 창의성을 지닌 공동체를 세워 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새로운 장을 열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지도자들과 사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했던 도전도, 우리를 지탱해 준 믿음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의 증언을 더욱 굳건히 하며, 성령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거버넌스, 선교, 형성의 구조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학적 관점

우리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특히 베드로전서 4장 8-11절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고 강해지는 것은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바탕으로, 미북부 대교구는 복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섭리는 모든 복의 기초이며, 이러한 복은 정의와 자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누고 실천하며 드러나야 합니다. 미북부 대교구는 우리 경계 안에 있는 교회들, 노회들, 지역 공동체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계, 재정적 지원,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능력. 우리는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격려하고 확장해갈 공동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 장의 핵심 사명을 통해 사회정의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자비로운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둔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회중의 생명력을 세우고, 구조적 인종주의를 해체하며, 체계적 빈곤을 근절하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에 헌신합니다

우리 대교구 안에는 한 몸의 여러 지체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은사와 방식이 있다는 사실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고유한 방식으로 사용하시기에, 다양성은 모든 이의 포용을 요구하며, 포용은 서로를 동등한 관심과 돌봄으로 대하라는 부르심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리더십 개발에 헌신합니다

리더십 개발은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과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회중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리더십 개발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여 정의, 평화, 치유를 이루어 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혁신에 헌신합니다

교회는 “개혁되었고, 계속 개혁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교회가 역사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항상 감당해 온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을 분별하며, 그 창조적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교구의 모든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복의 넓이와 깊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그 복을 세상 속에서 함께 나누고 확장해 하고자 합니다.

분별 과정

우리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New Way Forward(NWF) 비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평가는 세 가지 영역—강점, 연결성,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편 48편 12-14절의 신학적 틀이 이 과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교구 전역의 여러 팀이 설문을 작성하고, 경청 세션을 진행했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긍정적인 요소들은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차와 프로세스의 투명성 증가, 더 확장된 다양성과 포용, 상향식, 하향식, 역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방된 소통 구조, 거래적 관계가 아닌 공통된 선교와 목적을 중심으로 한 연결적(partnership-oriented) 관계의 강화, 자원 접근성의 향상과 간소화, 더 넓은 참여를 장려하는 교회들과 구성원들의 활발한 동참등이 설문과 경청 세션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동시에 우리가 비전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역 모델 자체가 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기존의 두 의사결정 기구—대교구 선교, 사역위원회와 대교구 총회(Synod Assembly)—에서 통합형 하이브리드-미셔널 모델(Hybrid-Missional Model)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하이브리드-미셔널 모델로의 전환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더욱 신실하고 효과적으로 살아가려는 대교구의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거버넌스 구조는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공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필요와 기회에 민첩하기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미셔널 접근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신뢰, 투명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및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역이 실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유연하게 분산합니다.

이 모델은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섬김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우리의 신학적 확신을 반영합니다. 필요한 때에 위원회, 위원단, 태스크포스, 팀이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참여는 직책이나 임직 여부가 아니라 은사와 열정에 의해 좌우됩니다(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제외).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에서 리더들을 불러냄으로써, 대교구는 사역을 공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책임성을 실천합니다.

유연성은 단지 조직 운영의 장점일 뿐 아니라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안정성과 적응력을 통합함으로써, 대교구는 교회가 모든 이의 은사를 존중하고, 공동 분별을 장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때 더욱 번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브리드-미셔널 모델은 우리의 증언을 강화하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추가적인 방향성 정렬

이 모델을 운전히 채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을 바라보고 조작하는 방식 또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과 방향을 제시하는 여섯 개의 사역 기둥은 **신학과 영성 형성, 거버넌스,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지역 학습, 보조금, 그리고 협력**입니다. 이 기둥들은 우리가 가장 깊이 간직한 가치들을 반영합니다 – 제자도를 세우고, 신실한 거버넌스를 실천하며, 투명하고 성실한 리더십을 길러 내고,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증폭시키며, 공동 학습의 기회를 만들고, 지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우리의 공동 사명을 확장하는 협력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이 사역 기둥들의 효과성과 관련된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함도 확인되었습니다.

-대교구 보조금을 받은 많은 사역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정의 사역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과 초기 제안 간 불일치, 현장 방문을 통해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과 초기 제안 간 불일치, 현장 방문 조율의 어려움 등 물류적 과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더 유연하고 지역화된 학습 모델을 위해 Come to the Table 과 Servant Leadership Program 같은 일부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교구는 보조금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혁신 보조금에 인센티브 기반 모델을 도입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 장로 코호트 그룹, 지역 학습 테이블, 목회자 대항 커뮤니티 조직화 코호트 등 코호트 기반 학습 기회를 마련하여 협력, 역량 강화, 리더십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대교구는 노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돋는 일에 계속 헌신합니다. 조직 보조금 확대와 중간 의회체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노회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견고해지고 지속 가능성도 강화됩니다. 특히 자원 공유와 파트너십 장려를 통해 규모가 작은 노회들도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돋습니다.

-Early Ministry Institute 와 Robert L. Washington Scholars Program 과 같은 프로그램은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교구의 협력과 적응성에 대한 새로운 초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명이 계속해서 의미 있게 유지되도록 돋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이니셔티브에 우리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지역 공동체의 변화하는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섬기고 협력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며, 우리의 유산 속에 뿌리내린 전통 있는 실천들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합니다. 보조금과 협력 사역을 통해, 대교구는 그리스도의 지역적 증언을 확장하고 그분의 빛을 더욱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말씀과 이 여섯 기둥은 우리를 선교 중심적이며, 포용적이고, 변화하는 교회와 세상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리더십 모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미북부 대교구가 신실하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 구조적으로 잘 갖추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상상된 대교구의 모습이며 – 우리는 이제 더욱 분명함과 용기,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llaboration

Theology &
Spiritual
Formation

Grants

Governance

Regional
Learning



Storytelling & Communication

Vision Report: 비전 보고서

Six Pillars: 여섯 가지 기둥

Collaboration: 협력

Theology & Spiritual Formation: 신학 및 영성 형성

Governance: 거버넌스

Storytelling & Communication: 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Regional Learning: 지역 학습

Grants: 보조금

핵심 기둥 (The Pillars)

여섯 개의 사역 기둥은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갈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신학과 영성 형성, 거버넌스,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지역 학습, 보조금, 그리고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미북부 대교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신실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신학 및 영성 형성

목적 (Purpose)

대교구는 의도적인 공부, 기도, 분별의 실천을 통해 제자도와 영적 깊이를 길러 갑니다. 신학과 영성 형성 기둥은 성경에 뿌리를 두면서도 오늘의 도전에 응답하는 더 깊은 신학적 성찰로 교회를 초대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공간, 리더십 개발, 신실한 상상력을 nurture 함으로써, 대교구는 개인과 공동체가 용기와 분명함,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기둥의 구조와 초점 (Pillar Structure and Focus)

이 팀은 주로 대교구 커미셔너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교구 전역의 일반 위원(at-large members)에게도 추가로 참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그룹은 대교구 총회(Synod Assembly)를 준비하기 위해 분기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상임서기(Stated Clerk)와 대교구 리더(Synod Leader)가 이 기둥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예배 기획팀 (Worship Planning Team)

예배는 우리의 모든 모임의 기초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의미 있는 예배의 자리를 제공하는데 전념하는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대교구 총회(Synod Assembly) 모임에는 예배 요소가 포함되며, 매년 세 번째 모임(가을 회기)에서는 예배가 그 모임의 구조 속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특별 예배를 기획합니다. 이 예배에는 초청 설교자, 예전 예술(liturgical art), 특별 음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팀은 대교구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되는 교육적 요소나 기타 창의적인 예배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성 형성팀 (Spiritual Formation Team)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분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대교구의 역사에는 기도와 분별로 사명을 신실하게 이끌어 온 지도자들과 커미셔너들의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든든한 기반 위에서, 대교구는 총회(Assembly) 삶의 핵심 요소로서 영성 형성에 새로운 의도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회의 사역을 기도, 신학적 성찰,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통해 지원할 영성 형성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팀은 총회가 회의 과정 전반에서 분별과 영적 주의 깊음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 총회 모임마다 영성 형성 요소를 기획하고 이끌어, 대교구의 거버넌스가 신앙에 뿌리내리고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평가 방식은 지속적인 피드백, 참여도 추적, 성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총회 모임 후에는 참가자들이 개인적 성장, 참여도, 사역 적용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제출합니다. 두 번째(봄) 총회에서는 보다 중심적인 영성 형성 경험을 제공하고, 그 프로그램의 구성, 관련성, 효과성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팀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주제, 형식, 일정 등을 조정합니다. 격년으로는 누적된 영향과 사역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을 총회: 피드백 설문조사, 참여도 추적
- 봄 총회: 주요 영성 형성 경험 제공, 종합 평가
- 상시: 질적 성찰, 프로그램 검토 및 조정
- 격년: 구성원 및 사역에 대한 누적 영향 평가

거버넌스 (조직 운영)

목적 (Purpose)

미북부 대교구의 거버넌스는 단순한 조직 구조를 넘어, 공동 리더십과 책임성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의 역할을 합니다. 장로교 정치(Polity)에 깊이 뿌리를 두면서도 혁신에 열려 있는 이 기둥은, 대교구가 그 사역을 투명성, 정직성, 그리고 신실함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이브리드-미셔널 모델 안에서 거버넌스는 대교구 법인(Synod Corporation)의 신탁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과 대교구 전체가 지닌 선교적 협약(missional commitments) 사이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결정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교적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둥의 구조와 초점

거버넌스 기둥은 대교구 총회(Synod Assembly), 대교구 협의회(Synod Council), 그리고 교회법적, 행정 구조(Ecclesiastical and Administrative Structures)로 구성됩니다.

대교구 총회 (Synod Assembly)

대교구 총회는 대교구의 공동 사역이 집중되고, 분별되며, 실행으로 이어지는 중심적 모임입니다. 총회는 대교구의 공식 업무를 처리하며, 각 기둥의 위원회와 태스크그룹이 제출하는 보고, 제안, 통찰을 바탕으로 여섯 개의 사역 기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거버넌스 공간을 넘어, 영적 성찰, 스토리텔링, 공동 분별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둥 위원회와 태스크그룹의 보고를 접하고 논의함으로써, 커미셔너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며, 가장 신실한 방향을 함께 분별합니다. 이들 기관에서 제시된 권고는 신중히 고려되고 토론된 후 표결에 부쳐지며, 이를 통해 결정이 대교구의 선교적 우선순위와 공동의 지혜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총회는 대교구의 하이브리드-미셔널 구조를 구현하며, 거버넌스와 선교가 긴밀히 얹혀 책임성을 강화하고, 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권한의 분산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회는 투명성, 협력, 신실한 청지기직의 문화를 형성하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대교구의 삶과 증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보장합니다.

대교구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 커미셔너 1 명, 장로 커미셔너 1 명, 청년자문대표(YAAD) 1 명, 각 코커스 대표 1 명, 미국장로교 여성회 대표 1 명, 대교구 의장과 부의장, 회계, 상임서기, 그리고 대교구 리더로 구성됩니다.

기둥 간의 협력 외에도, 대교구 총회는 미국장로교(PC[U.S.A.]) 산하의 단체들, 에큐메니컬 파트너들, 그리고 대교구의 사명과 일치하는 옹호 단체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교구 총회는 연 3 회 모이며, 다음 사항을 논의하거나 승인합니다.

- 여섯 개 기둥 및 해당 위원회/태스크포스의 권고
- 대교구 협의회의 권리
- 연간 예산
- 정관 및 상설 규정의 변경

대교구 총회의 이사회

대교구 총회는 대교구 법인(Synod Corporation)과 더 넓은 대교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전략적 방향과 재정적 감독을 제공하는 이사회(Board of Trustees)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뉴욕 주 법에 따라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하는 대교구 총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건전한 거버넌스, 재정적 책임성, 그리고 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대교구의 사명과 자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재산의 취득, 구매, 수령 또는 처분을 포함하여 법적 절차나 요구 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대교구가 법적, 윤리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책임을 집니다.

대교구 협의회 (Synod Council)

대교구 협의회는 기둥(Pillar) 대표자들과 대교구의 선출직 임원들로 구성되며, 대교구 총회와 총회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매월 모여 각 기둥의 보고를 듣고, 새롭게 발생한 사안을 논의하며, 각 기둥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여러 기둥이 함께 수행해야 하는 협력 사역을 계획합니다. 대교구 협의회는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만약 어떤 결정이 대교구의 대다수와 총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안일 경우, 그 결정은 다음 대교구 총회까지 보류하거나, 협의회가 총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대교구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교구 의장(Moderator) – 1년
- 대교구 부의장(Vice-Moderator) – 1년
- 직전 대교구 의장(Past Moderator) – 1년
- 기둥 대표자(Pillar Conveners) – 3년 임기 1회 + 연임 3년, 총 6년 가능

협의회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기둥 대표자의 임기를 더 짧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Treasurer), 상임서기(Stated Clerk), 대교구 리더(Synod Leader)의 임기는 대교구 총회와 상설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회법 구조 (Ecclesiastical)

교회법 구조는 상설 사법위원회(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대표성 위원회(Committee on Representation), 지명 위원회(Nominating Committee)의 기능을 규정합니다.

상설 사법위원회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대교구는 상설 사법위원회를 통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과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미국장로교(PC[U.S.A.]) 헌법 제 2 부 규정집(Book of Order)의 교회 치리(Church Discipline)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설 사법위원회는 6 명의 목사장로(Teaching Elders)와 6 명의 평신도 장로(Ruling Elders)로 이루어진 총 12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지명 위원회(Nominating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 대교구 총회에서 선출되며, 교회 치리 규정에 따라 6년 임기를 수행합니다.

대표성 위원회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성 위원회는 대교구의 모든 위원회와 위원회(committee)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포용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대교구 협의회(Synod Council) 구성원 1명과, 세 개 조로 나누어 선출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명 위원회(Nominating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 선출됩니다. 대교구 리더(Synod Leader)와 상임서기(Stated Clerk)가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표성 위원회는 대교구가 포용성과 대표성이라는 교회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검토합니다. 또한 대교구 협의회에 일치와 다양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리더십 내 다양성 증진을 적극 옹호합니다. 이 위원회는 인사위원회(Personnel Committee)와 협력하여 직원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문을 제공하며, 대교구 구조 안에서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대표성 위원회는 매년 대교구 총회에 보고하며, 대표성이 부족한 영역과 이전 보고 이후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들을 함께 보고합니다.

지명 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

지명 위원회는 기동 실무 그룹(Pillar Working Groups) 구성원, 기동 대표자(Pillar Conveners), 대교구 임원들, 상설 사법위원회(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위원, 그리고 다른 기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모든 대교구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합니다. 지명 위원회의 구성원은 대교구 협의회가 추천하며, 협의회 구성원 1명과 세 개 조로 나누어 선출되는 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교구 리더(Synod Leader)와 상임서기(Stated Clerk)가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명 위원회는 기동 실무 그룹과 협력하여, 총회 커미셔너가 아닌 추가 구성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해당 역할을 감당할 은사와 재능을 가진 후보를 발굴합니다. 또한 잠재적 후보자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의 봉사 가능성과 의지를 확인하며, 성향과 역량이 사역과 잘 맞는지 검토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걸쳐 공석을 채울 후보 명단을 작성해 대교구 총회에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총회에서 새로운 구조가 승인되기 위해, 현 리더십 팀은 기동 실무 그룹 구성원, 기동 대표자들, 그리고 부의장을 추천할 것입니다.

특별 행정 검토위원회 / 행정위원회 / 조사위원회

특별 행정 검토위원회(Special 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s)와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s)는 노회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요청에 따라 대교구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도구입니다. 노회가 조사위원회(Investigating Committee)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교구에 제한적 관할권을 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Administration)

행정 사역 영역은 인사위원회(Personnel Committee)와 재정 및 신탁 관리(Finance and Fiduciary Management)의 기능을 규정합니다.

인사위원회 (*Personnel Committee*)

인사위원회는 대교구의 인사(HR) 기능을 감독, 지도, 지원하여, 건강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교구의 인사 관행이 대교구의 사명, 비전, 그리고 여섯 개의 사역 기둥과 일치하도록 돋고, 동시에 책임성, 협력, 직원의 안녕을 증진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다섯 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이 위원장으로 봉사합니다. 대교구 협의회는 노회 간 대표성, 다양성, 그리고 관련 전문성(예: 인사, 경영, 목회 돌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분기마다 최소 한 번 모이며, 긴급한 인사 사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대교구 리더는 자신의 성과평가가 논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위원회의 실무 지원 역할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대교구의 인사 정책이 PC(USA) 정치(Polity), 법적 요구사항, 최선의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 권고, 검토합니다. 또한 직무 기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사명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상 구조, 복지, 인사 관행이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대교구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지원하며,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돋습니다. 위원회는 대교구 리더와 협력하여 모든 직원의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대교구 리더/집행 책임자와 상임서기의 연례 성과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필요 시 갈등 조정 및 직원 지원을 위한 자원 역할을 하며, 대교구 총회(Synod Assembly)와 협의회(Synod Council)에 인사 관련 사항, 정책 업데이트, 지원 복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재정 및 신탁 관리

목적

재정 및 신탁 관리 영역은 모든 재정 및 신탁 관련 사안에서 신실한 청지기직, 책임성,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사역은 대교구의 사명과 비전을 지원하며, 자원을 보호하고, 재정 관행을 전략적 우선순위와 일치시키며, 미국장로교(PC[U.S.A]) 정치(Polity)와 비영리 기관의 최선의 관행을 준수하도록 돋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동의 구조와 초점



재정 검토위원회 (Financial Review Committee)

재정 검토위원회는 재정 및 신탁 관리 사역 영역의 주요 감독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회계(Treasurer), 재정 매니저(Manager of Finance), 대교구 리더(Synod Leader), 의장(Moderator), 그리고 재정 전문성을 가진 대교구 지역 대표 2 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합니다.

감사위원회 (Audit)

감사위원회는 독립 회계법인과 함께 연례 감사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 변경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회계, 재정 매니저, 대교구 리더, 그리고 재정 경험이 있는 대교구 대표 3 명으로 구성되며, 연 1 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예산 (Budget)

예산위원회는 예산 수립을 조정하고 운영 예산을 관리, 모니터링합니다. 위원회는 기동 대표자(Pillar Conveners), 의장단, 직원으로 구성되며, 연 1 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투자 검토 (Investment Review)

투자 검토위원회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 투자 자문기관, 투자 정책을 감독합니다. 위원회는 회계, 재정 매니저, 대교구 리더, 그리고 재정 전문성을 가진 대교구 대표 3 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청지기 계획 및 전략 팀 (Stewardship Planning and Strategy Team)

청지기 계획팀은 재정 매니저, 회계, 대교구 리더, 기금 개발 인턴, 그리고 대교구 커미션의 일반 위원 2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팀은 연 2 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선교 전략팀 (Missional Strategy Team)

선교 전략팀은 현재 진행 중인 선교 사역을 검토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모금 전략을 제안합니다. 재정 매니저, 회계, 대교구 리더, 기금 개발 인턴, 일반 위원 1 명으로 구성되며, 연 2 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조금 지원 (Grants)

목적

보조금 기둥의 중심에는 공동체를 세우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책임성을 더욱 깊게 하고, 복음에 뿌리 내린 지속 가능한 사역을 일구려는 담대하고 희망적인 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협력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며, 사역의 실제적 선교 영향도 함께 중요하게 다룹니다. 제안된 변화들은 공동체 정의와 분별의 영적 실천을 반영하고,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세우며, 문서 검토가 아닌 예언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관의 문지기가 아니라 연결적 파트너가 되는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기둥의 구조와 초점

보조금 기둥은 미북부 대교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용기 있고, 포용적이며,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둥은 각 사역이 오늘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탐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우리의 보조금 예산은 이러한 버전을 지지하면서도, 맡겨진 자원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혁신 보조금(Inovation Grant): \$140,000
신생 복음 공동체 보조금(Emerging Gospel Community Grant): \$100,000
청소년 및 청년 리더십 개발 보조금: \$40,000
캠퍼스 사역 보조금: \$30,000

이 기둥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혁신 보조금의 인센티브 기반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이 보조금은 첫 해에 \$10,000 이 지급되며, 두 번째 해에는 진전과 지속 가능성의 입증될 경우 추가로 \$15,000 이 지급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 Funders of Faith – 대교구가 지원, 관리하는 보조금 한 건을 매달 소개하는 디지털 뉴스레터 개발 및 배포
- 모든 보조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 보고(training for progress reporting) 필수 교육 신설
- 기존 수혜자(성공 사례)와 신규 수혜자를 연결하여 2년 동안 동행, 조언하는 멘토 프로그램 신설.

교회와 노회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주요 변화

초신청자 교육

- 보조금 작성 방법과 대교구 가치에 관한 필수 웨비나
- 연 2 회 진행 –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제공

연례 성과 보고 교육

- 자금 수령 후 7 개월 이내 필수 웨비나 참여
- 문서 제출이 아닌, 언약(covenant)으로서의 책임성에 초점
- 보고서는 데이터뿐 아니라 이야기(사진, 인용, 간증)를 포함해야 함

신규 수혜자 멘토링

- 모든 신규 수혜자에게 경험 많은 멘토 배정
- 분기별 점검 –Zoom 또는 대면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 Funders of Faith 디지털 뉴스레터 발행
- 보조금/사역 이야기를 영상, 기사, 대교구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

Incentive-Based Funding (2026년 시작)

- 혁신 보조금: 1년 차 \$10,000 지급
- 진전, 지속 가능성 입증 시 2년 차 최대 \$15,000
- 책임성과 장기적 사역 건강성 강화 목적

형평성과 포용 강조

- 교육, 다국어 접근성, 멘토링을 통해 기회의 균형 제공
- 역사적으로 자원이 부족했던 회중을 지원하도록 설계

강화된 연결성

- 보조금이 더 관계 기반으로 변화 – 회중, 노회, 지도자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연결
- 단순히 “프로젝트 지원”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으로 초점 이동

2028년에는 인센티브 기반 보조금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현재의 지원 규모를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공식 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됩니다.

보조금 신청 평가를 감독하고 승인 권고를 담당할 보조금 검토위원회(Grants Review Committee)가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교회의 미래를 세울 변화적 사역과 신실한 지도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목사장로 2명, 장로 2명, 대교구 일반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보조금 신청서와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금액을 권고하며, 보조금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보조금 기동의 사역은 다음 기준을 통해 평가됩니다:

| 정량적 지표 | 정성적 지표 |
|------------------------------|----------------------------|
| 웨비나 및 교육 참여율 | 교육 및 멘토링 이후 수혜자 설문 |
| 보조금 신청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초신청자 수 | 연례 성과 보고서에 포함된 성찰 질문 응답 |
| 멘토와의 체크인 횟수 | 멘티들의 멘토링 관계 및 지원 필요에 대한 성찰 |
| 정시 제출된 성과 보고서 비율 및 완료율 | 스토리텔링 및 실제 사역 임팩트 |
| 다국어(영어/스페인어/한국어) 신청서 및 수혜자 수 | |
| 소외된 공동체에서의 신청 증가 추세 | |

협력

목적

협력 기동은 미북부 대교구 안의 노회들 사이에서 지속 가능성, 혁신, 그리고 활력을 촉진합니다. 이 사역 영역은 자원 공유를 장려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육성하며, 필요할 경우 노회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노회를 재활성화하고, 중간 공의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활기차고 포용적이며 선교 중심적인 교회 구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의도적인 협력은 노회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신실한 증언과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기동의 구조와 초점

협력 기동은 혁신, 선교 중심의 파트너십,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헌신하는 노회와 중간 공의회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동은 특히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감소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노회들, 대교구 안에서 연결성과 공동 선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중간 공의회들, 그리고 협력, 통합, 자원 공유 모델을 탐색하는 리더십 구조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동은 대교구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독립적인 커미션을 통해 운영될 것입니다. 이 9인 구성체에는 협의회 대표, 기동 리더십, 대교구 리더, 총회 구성원, 그리고 일반 위원의 목사장로 또는 장로가 포함됩니다. 구성은 대교구의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여, 협력 이니셔티브를 이끄는데 필요한 폭넓은 관점을 보장합니다. 활기차고 서로 연결된 노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 기동은 상호 연계된 여섯 가지 전략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중 노회 참여

온라인 및 대면 모임을 통해, 노회들은 사회적, 교회적, 선교적 유대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공동 학습, 집단적 성찰, 조율된 실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교구의 공동 증언을 강화하고 상호 지원의 문화를 형성할 것입니다.

관계 구축 모임

신뢰, 공유된 가치, 그리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모임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험들은 의미 있는 참여와 상호 책임성, 그리고 노회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촉진하여, 계속되는 협력적 사역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동 리더십과 자원 공유

공동 직원 배치와 자원 공유를 포함한 혁신적인 리더십 모델들이 노회 전반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대교구의 전략적 지원(재정적, 리더십적, 자문적 지원)은 이러한 모델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돋고, 협력과 공동 선교를 위한 장기적 역량을 형성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과 공동 학습

이 기둥은 대교구의 소통 채널과 행사를 통해 노회 전반의 성공 사례를 기념하고 공유하며, 협력적 이니셔티브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노회 참여자들은 분별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되며, 9-12 개월 이내에 공동 사역을 실행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이 제시되어, 학습과 실질적 영향의 문화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 보조금 이니셔티브

이 기둥은 노회 간의 협력, 혁신, 그리고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증진하는 이니셔티브들을 고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제안서에는 목표,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대교구의 전략적 비전과의 정렬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투명성, 공동 학습, 그리고 책임성이 보조금 절차를 이끌어, 자원이 공동 사역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략적 관리 지원

협력 구성원들은 조직 모델, 노회 통합, 중재, 갈등 전환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교구 리더와 상임서기는 노회가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와 확신을 갖추도록 지속적인지도, 코칭, 그리고 전환기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협력 기둥은 노회 간 유대의 강화, 지속 가능한 공동 리더십 및 자원 관리 모델의 구축, 자원이 부족한 노회에서의 더 큰 혁신, 그리고 더욱 결속력 있는 대교구 구조 등 대교구와 그 노회들을 위한 변혁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회 통합 및 공동 리더십 보조금 (Merger and Shared Leadership Grants) – \$125,000

대교구는 오늘날의 사역 현실이 종종 노회 간의 담대한 협력과 창의적인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교구는 연간 총 \$45,000 규모의 노회 통합 및 공동 리더십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전략 계획, 조직 컨설팅, 직원 배치 필요, 또는 새로운 거버넌스 및 사역 방식을 시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합 절차에 참여하는 노회는 법적 및 행정 비용을 돋기 위해 추가로 \$5,0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125,000 규모의 약속은 협력이 활력으로 가는 길이라는 대교구의 비전을 반영합니다.

공의회 모임 (Council Gatherings) – \$10,000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교구는 공의회들이 함께 모여 공동 분별, 더 깊은 연결, 그리고 조율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돋는 리더십 모임에 \$3,500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교구 훈련 모임 (Synod Training Gatherings) – \$15,000

대교구 전체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교구 훈련 모임에 \$15,000가 투자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중간 공의회 지도자들과 평신도 장로들이 지식을 심화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공동 사역을 강화하는 관계를 기를 수 있도록 의도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훈련 모임은 지역 워크숍, 대교구 전체 심포지엄, 혹은 경험 많은 교육자와 실무자가 인도하는 리트릿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정성적, 정량적 지표 모두를 통해 평가되며, 협력 지원 보조금은 2028년에 재평가될 것입니다. 기둥 그룹은 2028년 10월 대교구 총회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 정량적 지표 | 정성적 지표 |
|--|---|
| 분별과 대교구 지원 이후 공동 사역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된 일정표 |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노회와의 분기별 점검 |
| 배운 점을 파악하고 향후 모임에 반영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되는 행사 이후 평가 | 재정 및 사역 자료를 토대로 한 노회 건강성 평가 기준의 개발 및 활용 |
| | 통합되었거나 새롭게 협력한 노회에서의 활력과 통합에 대한 기록을 협력 커미션과 대교구 리더십에 보고 |

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목적

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기동은 신실한 이야기 나눔 자체가 하나의 사역이라는 우리의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역은 교회의 정체성, 사명, 증언을 염두,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혁의 역사를 보고, 듣고,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분별의 전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깊은 경청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이야기를 몸으로 살아내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비전, 사명, 선언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교회로 부르시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로고를 통해 담대하게 표현됩니다.

선교적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브랜딩이나 홍보가 아니라, 제자도와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감당함으로써, 대교구는 노회와 교회, 지역 공동체에게 신실한 소통이 어떻게 소속감을 키우고, 행동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명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기동의 구조 및 초점

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기동의 사역은 대교구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와 5 명의 일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끌며, 두 가지 핵심 약속에 집중하게 됩니다. 첫째, 대교구의 정체성을 소통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 사명, 로고, 선언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공유하여, 모든 이들이 이를 알고, 영감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환대와 연결성을 구현하는 활기차고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재설계된 웹사이트, 더 인터랙티브한 뉴스레터, 디지털 자료 허브, 그리고 대교구의 공동 삶을 강화하는 구체적 표현들을 포함합니다.

출범 후 6 개월이 지나면, 스토리텔링 태스크포스와 대교구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는 웹사이트 재설계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진척도, 대교구 자료 전반에서 새 로고와 선언문의 가시성, 그리고 새로운 뉴스레터 템플릿의 실행 여부를 기준으로 효과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대교구는 말과 상징뿐 아니라 환대, 정의, 혁신의 실천을 통해 믿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신실한 소통이 어떻게 연결을 강화하고, 신뢰를 길러 주며, 사명을 더욱 담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대교구 선언문
성령의 인도하심. 변혁의 믿음.
경계 없는 환대.

비전 선언문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거버넌스와 혁신,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명 선언문

은혜로 충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교구 공동체로서, 노회와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이 신뢰를 쌓고 자원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정의, 협평, 사랑의 공동체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곳입니다.



SYNOD OF THE NORTHEAST
Presbyterian Church (U.S.A.)

로고 서사

대교구의 새로운 로고는 하나님, 목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이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곡선은 창조와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잔물결은 대교구를 이루는 8 개 주와 밖으로 흘러가는 믿음을 상징하며, 서로 엮인 손은 하나님의 포옹과 우리의 급진적 포용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고, 불꽃은 성령의 숨결을 상징하며, 변화에 응답하는 교회를 생동하게 합니다. 중앙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리더십과 옹호,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부르심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지역 학습

목적

의미 있는 대화, 소통,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헌신하여, 지역 학습 기동은 대교구가 확인한 필요와 요청을 다루기 위한 시의적절한 웨비나와 대면 모임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그룹은 보조금 관리팀과 협력하여 지역 보조금 교육과 연례 혁신 액스포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동의 구조 및 초점

지역 학습 기동은 목사장로 1 명, 장로 1 명, 그리고 대교구 일반위원 2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대교구의 사명과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지역 행사를 주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위원회는 웨비나, 대면 모임, 줌 회의, 기타 소통 방식이 참여자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맞는’ 관련성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적절한 시기에 행사를 기획, 조율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행정을 담당하는 중간 공의회 레지던트가 지역 학습 위원회의 실무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중간 공의회 레지던트를 통해 대교구 리더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웨비나 기획팀

이 팀은 목사장로 1 명, 장로 1 명, 그리고 대교구 일반 위원 1 명 또는 2 명으로 구성된 3~4 명의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팀은 웨비나의 콘텐츠, 형식, 발표자/진행자, 그리고 대상 청중을 개발, 선정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대면 모임 기획팀

이 팀은 장로 1 명, 목사장로 1 명, 그리고 대교구 일반 위원 1 명 또는 2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팀의 책임에는 주제와 테마 개발, 발표자/진행자의 선정 및 섭외, 장소 선정, 그리고 날짜와 시간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두 그룹 모두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시차를 둔(cohort staggered) 구성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든 추천 프로그램/행사는 최종 승인을 위해 지역 학습 위원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학습 행사 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참가자 설문을 실시하고, 웨비나 조회 수, 대면 모임 참석자 수, 그리고 웨비나가 얼마나 자주 선택되어 시청되는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노회와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역

비전을 분별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프로그램과 사역의 건전성이 성공에 필수적이며, 비전을 온전히 뒷받침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계속 유지되겠지만, 개인, 교회, 노회, 대교구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들도 등장할 것입니다.

로버트 L. 워싱턴 장학생 프로그램

목적

새롭게 재정비된 로버트 L. 워싱턴 장학생 프로그램은 신앙, 정의, 그리고 리더십 실천을 기반으로, 미국장로교(PC(USA))의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로버트 L. 워싱턴 장로의 유산을 기리며, 이 프로그램은 대표성이 부족한 공동체 출신의 신진 지도자들이 교회와 사회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워싱턴 장학생 프로그램은 멘토십, 신학, 사회 정의,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이는 PC(USA)의 보다 넓은 리더십 양성 생태계와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이러한 여러 이니셔티브들은 교회의 다양한 차원과 사역 현장에서 신실하고 다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로버트 L. 워싱턴 장학생 프로그램은 학문적 우수성, 리더십 형성, 그리고 신앙의 실천적 통합을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십을 제공하며, 신학, 사회 정의 옹호, 섬김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여 기독교적 섬김에 대한 보다 깊은 소명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생, 대학 졸업자, 또는 신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대교구 내 장로교회에 속한 신앙, 학습, 리더십, 공동체 참여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이는 이들에게도 지원을 권장합니다.

모집은 1 월부터 3 월까지 노회, 교회, 대학, 신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아웃리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서는 4 월 15 일까지 접수되며, 팀은 6 월 1 일까지 새로운 코호트를 발표합니다.

1 년 과정의 프로그램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임직 리트릿, 멘토십 프로그램, 분기별 리더십 및 신앙 형성 워크숍이 포함됩니다. 참가자들을 프로그램 경험을 되돌아보는 최종 성찰로서 캡스톤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교구 리더십은 지원서를 검토하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합니다.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는 교육자, 이전 장학생, 멘토들로 구성되며, 커리큘럼, 모집, 파트너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을 총괄하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문서, 보고 행사를 조정하는 행정 지원 인력이 프로그램 스태프로 포함됩니다. 자원봉사 역할에는 멘토십 팀과 장학생 동문 네트워크가 포함되며, 이들은 참가자들의 멘토링, 성장, 분별 과정에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의 재정은 Wurffel-Sills 기금을 활용하며, 예산 배정, 교회 후원, 장로교 재단의 보조금 등 추가 출처로 보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앙 기반 지도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대교구 전역의 신진 지도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PC(USA) 내 리더십 기회와의 연결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총족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 멘토 피드백 양식, 봉사 프로젝트 평가, 연례 검토가 프로그램 평가 도구로 활용됩니다.

소형 교회 레지던시 프로그램

목적

2023년 대교구의 승인을 받은 소형 교회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소규모 교회들과 신진 목회자들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투자입니다. 이 3년제 지정 목사 파견 이니셔티브는 변화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장기적 목회 리더십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부르기 어려운(hard-to-call)’ 교회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들에게 지속적인 목회 리더십을 제공하는 동시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체계적인 레지던시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지던트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는 변화 관리, 제자도, 청지기직, 전도, 공동체 관계에 관한 의도적 훈련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활력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들이 오늘의 환경 속에서 신실하고 세상을 향한 사역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도록 격려합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목회 레지던트들에게 소형 교회 레지던시는 공적 신학자(public theologian)로 성장할 수 있는 풍성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변화에 적응하도록 이끌고, 사역 팀을 구성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21세기 교회가 지닌 복잡한 역할을 해쳐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레지던시는 실제적으로 형성적인 경험을 모두 제공하여,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돋는 동시에 소형 교회 사역에 대한 소명적 명확성을 분별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깊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실험과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헌신하며, 레지던트들은 지속 가능하고 상황에 맞는 혁신적 사역 방안을 탐구하는 데 헌신합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함께 새로운 사역 모델에 참여하여, 지역 교회의 활력을 강화하고 대교구 전체의 증언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기 목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에 목회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보다 넓은 비전은 창의성, 회복력, 강한 목회적 존재감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신실하게 성장 준비와 영감을 갖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소형 교회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사역을 재구상하고, 교회 활력을 지원하며, 오늘과 내일의 교회를 위한 지도자들을 형성하려는 대교구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3년 동안 연간 \$20,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목회 리더십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교구 리더와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행정을 담당하는 중간 공의회 레지던트가 함께 자원을 제공하고 감독합니다. 각 레지던시는 아래 일정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체 이니셔티브는 2028년에 재평가되어 성과를 검토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일정 | 평가 활동 | 참여자 | 초점 / 산출물 |
|---------------------------------------|-----------|----------------------------|---|
| 레지던시 이전 (1년 차 시작 전) | 기초 평가 | 교회 & 목회자 | 교회 활력도 평가, 사역 계획, 리더십 팀 명단, 목회자 EQi 및 갈등 모델, EMI 등록 확인 |
| 분기별 점검 (3, 6, 9, 12 개월, 1-2년 차) | 진행 상황 검토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목회자, 교회 리더십 팀 | 사역 목표 추적, 적응적 리더십 성장, 팀 역학, 교회 참여도 확인; 자기 성찰 및 피드백 보고서 |
| 중간 평가 (6개월 차 종료, 1-2년 차) | 중간 평가 보고서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목회자, 교회 리더십 팀 | 사역 계획 실행, 리더십 적용, 지역사회 영향, 영성 형성 검토; 피드백이 포함된 서면 보고서 |
| 연례 종합 평가 (1-2년 차 종료 시) | 프로그램 검토 | 프로그램 스태프, 대교구 리더십, 목회자, 교회 | 목표 달성을 여부, 교회 변화, 목회자의 소명적 명확성 평가; 최신화된 활력도 평가, 설문, 인터뷰; 개선을 위한 권고안 포함. |
| 레지던시 후 팔로우업 (완료 후 6-12개월) | 장기적 성과 | 목회자 & 교회 | 목회자 배치 현황 추적, 교회 혁신의 지속 가능성 평가; 후속 설문, 성공 사례, 사례 연구 |

커뮤니티 조직화 코호트

목적

대교구는 리더십 개발과 지역사회 변화를 향한 새로운 비전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조직화 코호트를 출범할 것입니다. 이 코호트는 목회자, 중간 공의회 지도자, 그리고 지역사회 옹호자들에게 신앙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조직화의 원리와 실천을 탐구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영적 기반을 실제적 도구와 결별하도록 격려받으며, 변화와 도전의 환경 속에서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커뮤니티 조직화 코호트는 지역 전역의 지도자들이 신앙과 행동의 탄탄한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준비시키며, 정의와 희망이 구체적이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미래를 가꾸도록 돋습니다.

풀뿌리 리더십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헌신을 지닌 지역 조직가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이끌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공동 학습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십과 옹호 역량을 강화하고, 신학적 신념을 구체적 행동과 연결하며, 지역사회 내 장기적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동료들과의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교구는 2026년 예산에 \$12,000을 배정하여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투자는 지도자들이 신앙과 행동을 통합하도록 준비시키며, 신앙 공동체가 회복력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데 있어 담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조직화 코호트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대교구 리더와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행정을 담당하는 중간 공의회 레지던트의 전략적 감독과 지원을 받으며 운영될 것입니다. 5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은 직원 및 코호트 리더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기준 지표, 성취, 향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권고안 등을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평가는 2028년에 실시되며, 성공 여부는 아래의 지표들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 평가 영역 | 성공 기준 | 지표 / 측정 항목 |
|-----------------|--|--|
| 리더십 성장 | 참여자들이 신앙 기반 리더십과 옹호 역량의 향상을 보여줌 | 코호트 전-후 자기 평가,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기획 및 실행 |
| 지역사회 영향 | 참여자들이 지역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이룹니다 | 출범한 이니셔티브 수, 지원받은 사람 수, 형성된 파트너십, 대상 이슈의 측정 가능한 개선 |
|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들이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동료들과 협력함 | 동료 피드백, 코호트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참여와 협력 |
| 신앙과 행동의 통합 | 참여자들이 영적 가치를 실제적인 조직 전략과 연결함 | 신앙에 기반한 의사 결정의 증거, 이니셔티브에서의 윤리적-포용적 실천 채택 |
| 참여자 성찰 & 학습 | 참여자들이 자신의 성장에 대해 성찰하고 배운 내용을 명확히 표현함 | 저널, 성찰 과제, 발표, 정성적 피드백 |
| 지속 가능성 & 장기적 영향 | 참여자들이 코호트 이후에도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이니셔티브를 유지함 | 코호트 종료 6-12개월 후 실시되는 후속 설문, 지속되는 프로젝트, 파트너십, 지역사회 영향 |

시노드 전체 위임목사 교육 프로그램

목적

대교구는 노회 전반에서 사역하는 파송 장로 (Commissioned Ruling Elders, CRE) 준비 과정을 강화하고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대교구 전체의 파송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은 CRE 후보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고품질이고,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이 신실하고 효과적인 사역에 필요한 신학적, 목회적, 실천적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파송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은 CRE 준비를 위한 대교구 전체의 통합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학 및 목회 훈련에 대한 공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노회 간의 일체감을 심화할 뿐 아니라, 소형, 농촌, 이민자, 자원이 부족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파송 목회 사역의 소명을 분별하는 평신도 장로들을 직접 지원하며, 자원이 부족하거나 농촌 혹은 전환기 상황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CRE 와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일관되고 고품질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간 공의회를 지원합니다.

2025년, 대교구는 CRE를 위한 대교구 전체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파송 목회자 기획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대교구 전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케시 데인 목사 - 뉴저지 남부 노회
케이트 존스 칼론 목사 - 롱아일랜드 노회
스티브 슈셋 목사 - 뉴저지 하일랜즈 노회
이벳 스웨이비 립튼 장로 - 허드슨강 노회
니콜 월킨슨 박사 - 뉴저지 남부 노회

이 프로그램은 온전히 출범시키기 위해, 팀은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팀은 신학, 개혁교회 정치, 설교와 예배, 목회 돌봄, 선교를 포함하는 핵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노회와 교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선택 과목을 개발할 것입니다. 2025년 대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이 이 교육과정 개발을 이끄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교구 기반 교수진

팀은 대교구 내부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교육이 지역의 다양성, 은사, 그리고 맥락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접근 가능한 학습 모델

팀은 대면 집중 교육, 온라인 모듈, 동료 학습 코호트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을 도입하고, 소규모 노회나 자원이 부족한 노회들을 위해 비용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파트너십 및 인증

듀부크 신학교(Dubuque Theological Seminary)는 대교구 CRE 훈련 프로그램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프로그램과 인증 요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신학교로부터 기독교 리더십 수료증 (Certificate in Christian Leadership)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평신도 장로들은 Wurffle-Sills 기금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파송 목회자 리트릿은 중간 공의회 지원 예산을 통해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의 효과성과 지역 필요와의 정렬성에 대한 노회의 피드백, CRE 후보자와 감독 목회자 대상의 정기 설문, 그리고 과정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평가될 것입니다. 팀은 참여, 현황, 성과, 사역 영향에 관해 매년 대교구 총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8년에 재평가 될 것입니다.

초기 사역 연구소 (EMI)

목적

초기 사역 연구소(Early Ministry Institute, EMI)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대교구의 헌신을 구현합니다. EMI는 초기 경력의 목회자, 파송 장로(CRE), 군목 및 병원목사(채플린)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문성 개발, 영성 형성, 공동체 지원을 통합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역 초기의 고유한 기회와 도전들에 응답합니다. 대교구가 이 새로운 비전에 들어서면서, EMI는 리더십 개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EMI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행의 언약입니다. 워크숍, 세미나, 참여형 학습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신실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기술과 적응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다루는 주제는 목회 돌봄, 신학적 성찰, 교회 행정, 리더십 개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실천 등 광범위합니다. 각 학습 공간은 실제성과 성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참여자들이 일상적인 사역은 물론 장기적인 사역의 요구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적 토대에 대한 강조 역시 핵심입니다. EMI는 모든 모임에 기도, 예배, 영성 훈련을 의도적으로 통합하여, 사역이 단지 기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깊고 지속적인 연결로 유지됨을 지도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양육과 성찰의 리듬은 참여자들의 소명 의식을 강화하고, 회복력, 겸손,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EMI의 영향력은 참여자들을 훨씬 넘어섭니다. 새로운 목회자들이 지혜, 회복력, 영적 깊이에서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지역사회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대교구 전반에 활력과 지속 가능성 확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다음 세대까지 풍성히 이어지도록 보장합니다.

EMI의 재정은 대교구의 주요 지원과 더불어 노회, 참가자, Wurffel-Sills 기금의 투자를 통해 마련됩니다.

EMI는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행정을 담당하는 중간 공의회 레지던트와 대교구 리더가 함께 자원을 제공합니다. 7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은 코호트, 리더십, 그리고 초청 진행자들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중간 공의회 리더십 경로: 차세대 리더를 위한 기초 과정

목적

2025년, 대교구는 노회와 대교구 리더십에서 성장하는 부르심을 분별하는 이들을 준비시키고 영감을 주기 위한 4 일간의 훈련 과정인 중간 공의회 리더십 경로: 차세대 리더를 위한 기초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중간 공의회 사역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실에 대응하며, 이러한 구조를 신설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관점을 갖춘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에 응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준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변화를 헤쳐 나가며 교회를 활력으로 이끄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회복력 있는 지도자들을 길러냅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중간 공의회 리더십 경로: 차세대 리더를 위한 기초 과정은 매년 뉴저지 프린스턴에 위치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교구 리더와 초청 교수진이 이끌며, 참여자들이 중간 공의회 사역의 실제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소명 분별에 대한 강조입니다. 리더십 평가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강점, 성장 영역,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목회적 정체성, 적응적 리더십, 선교적 내러티브에 대한 인도된 성찰은 중간 공의회 사역이 자신의 소명의 일부인지 숙고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참여자 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참여자들이 부담합니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교구 내 참여자들은 등록비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교구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3,000을 배정했습니다. 동부대교구는 교단 전체에서 두 번째로 체계적인 중간 공의회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는 더 넓은 교회 안에서의 혁신, 협력, 리더십 개발에 대한 강한 협신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8년에 지속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옹호 및 이민 태스크포스

목적

2025년 2월에 구성된 옹호 및 이민 태스크포스는 동부대교구 내에서 옹호, 교육, 지원 사역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복음이 부르는 정의와 자비의 소명에 뿌리를 두고, 이 태스크포스는 취약 계층, 특히 이민자, 난민, 그리고 불평등한 정책과 사회 구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이 태스크포스는 이민 및 옹호 분야에서 검증된 경험을 가진 중간 공의회 및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7~9명으로 구성되며, 정의로운 정책을 발전시키고, 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타종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의 사역은 대교구 리더와 상임서기가 지원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의 사역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옹호 및 정책 영향력

이 팀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신앙 기반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개혁을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 및 인식 제고

이 팀은 이해를 높이고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워크숍, 스토리텔링 이니셔티브, 예배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대 구축

이 팀은 타종교 네트워크, 지역사회 단체, 노회들과 협력하여 공동 행동을 조율할 것입니다.

영적 및 정서적 지원

이 팀은 이민자와 기타 위험에 처한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초기 재정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 정의 DEIJ 예산 항목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대교구의 새로운 비전의 일환으로, 이 태스크포스는 계속 발전될 것이며, 그 실행은 취약한 공동체를 향한 옹호, 정의, 사역에 대한 대교구의 지속적 혼신의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코칭 및 중재 지원

목적

건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효과적인 리더십을 양성하려는 대교구의 지속적 헌신의 일환으로, 코칭 네트워크와 중재 네트워크라는 두 기존 네트워크는 지역 전역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대교구 사명의 중요한 표현으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조 및 초점

코칭 네트워크

코칭 네트워크는 교회, 노회, 지역사회 사역에서 성기는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준비시키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사역입니다. 건강한 지도자가 활기찬 교회를 세운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이 네트워크는 일대일 코칭, 그룹 세션, 지속적 교육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찰, 책임, 성장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코칭 네트워크는 지도자들을 강화하고, 그 지도자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강화합니다. 교육, 참가자 보조금, 조정, 공동체 모임을 통해, 이 사역은 재정적 여건이나 사역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지도자가 전문 코칭과 지속적 형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중재 네트워크 및 평화 사역(The Mediation Network and Peacemaking Ministry)

중재 네트워크는 롬바드 메노나이트 평화센터(Lombard Mennonite Peace Center)에서 훈련 받은 중재자들로 구성된 풀을 제공하여, 교회나 노회가 인도된 화해가 필요한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역은 평화사역(피스메이킹) 기금의 지원을 받아, 중재자들을 위한 보수 교육 워크숍을 제공하고, 인종차별 해소 교육, 이민과 정의를 주제로 한 모임 등 이해와 치유를 촉진하는 행사를 주관합니다. 지도자들이 갈등에 신실하고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이 중재 및 평화사역은 일치, 자비,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대교구의 헌신을 드러냅니다.

이 두 네트워크는 함께 회복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신뢰, 화해, 희망에 기반한 공동체를 세우려는 대교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합니다.

다음 단계: 실행 및 평가 계획

우리는 이 비전의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평가와 지속적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성취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신실하고 성찰적으로 평가하며, 오늘의 필요에 맞게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들을 갖추는 데에도 있습니다.

실행 및 평가 팀



실행 및 평가 팀은 2025년 교회와 세상을 다시 상상하기 비전 보고서를 신실하게 실현하도록 동북부 대교구를 이끌 것입니다. 이 팀은 비전의 신학적 정합성과 그 비전을 형성한 과정을 보존하면서, 실행 전반을 감독할 것입니다.

이 팀은 대교구 전역에서 선출된 아홉 명의 구성원(평의회, 커미셔너, 일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팀 구성원을 위한 추천은 2026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됩니다.

이 팀의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혁신학과 PC(USA) 교단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
- 적응적 리더십, 전략 기획, 조직 변화에 대한 경험
- 정의, 형평성, 포용, 혁신적 접근에 대한 혼신
- 우수한 퍼실리레이션 능력, 소통 능력, 참여 유도 역량
- 전략적 비전과 세부 관리 능력을 모두 갖춘 역량
- 노회 및 대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
- 필요한 출장 및 회의 참석 가능 여부
- 협력의 정신,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대교구를 위한 스토리텔러이자 옹호자로 섬길 수 있는 능력

대교구 리더는 2026년 10월 총회에서 선발된 팀을 추천할 것입니다. 팀 구성원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년 임기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분기별 회의에 참석하며, 매년 2일간의 연례 모임에 참여합니다. 또한 이 팀은 대교구 총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실행 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전 및 과정 평가

이 팀은 비전 보고서의 신학적 약속, 가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비전 수립 과정(1~3 단계)을 평가하여, 향후 사역을 위한 배움과 실천 내용을 기록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실행 설계 및 감독

이 팀은 보고서의 원칙에 기반하여 우선순위, 일정, 협력 관계, 실행을 지원할 구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비전 선언을 혁신, 정의, 환대, 성령인도 리더십이라는 대교구의 가치에 부합하는 측정 가능한 실천 과제들로 구체화할 것입니다.

조직적 정렬

이 팀은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상임 규정, 정관)에 대한 개정 사항을 권고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정책, 직원 구성, 재정이 새롭게 재구상된 비전의 약속들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해 대교구 직원, 위원회,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참여 및 역량 강화

이 팀은 노회, 교회,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소통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및 조정

이 팀은 진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정 사항을 권고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보고서, 뉴스레터, 타운홀 미팅을 통해 결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상세히 제시된 항목들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이 팀은 비전과 여섯 가지 기둥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가치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거버넌스, 직원 구조, 재정 관행과의 정렬, 노회 및 파트너들의 참여 정도, 비전 목표를 향한 기록된 진전 등을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의 말

세상을 향한 교회를 새롭게 상상하는 우리의 비전을 만드는 데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식별 팀

조 추 목사 (Rev. Joe Chu)
이중인 목사 (Rev. Jyungin Lee)
마가린 맥클라린 장로 (Elder Magalene McClarrin)
사브리나 슬레이터 목사 (Rev. Sabrina Slater)
홀리 헤일 톰슨 목사(박사) (Rev. Dr. Holly Haile Thompson)
샌도우나 골먼 애슬리 목사(박사) (Rev. Dr. SanDawna Gaulman Ashley)
오로콘 우도 목사(박사) (Rev. Dr. Okokon Udo)

전 팀 구성원

헤더 커크-데이비도프 목사(박사) (Rev. Dr. Heather Kirk-Davidoff)
레슬리 레이셤 목사 (Rev. Leslie Latham)
에릭 토마스 목사(박사) (Rev. Dr. Eric Thomas)
다코타 휘트테이커 목사 (Rev. Dakota Whittaker)

비전 파트너

낸시 탈벗 목사, 서기 (Rev. Nancy Talbot, Stated Clerk)
최스티븐 박 목사, 선교 및 사역 부서 모더레이터 (Rev. Stephen Park Choi, Mission and Ministry Moderator)
리사 베이커 장로, 대교구 총회 모더레이터 (Elder Lisa Baker, Synod Assembly Moderator)
수 스미스 목사, 대교구 총회 차기 모더레이터 (Rev. Sue Smith, Synod Assembly Moderator Elect)
마크 베넷,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 (Mr. Mark Bennett, Communication Specialist)
マイ클 요먼 장로, 보조금 코디네이터 (Elder Michael Yeoman, Grants Coordinator)
프랜시스 클라이버, 재정 매니저 (Ms. Francis Klaiber, Finance Manager)
니콜 버리스 목사(박사), 행정 코디네이터 (Rev. Dr. Nichol Burris, Administrative Coordinator)
그레고리 심슨 목사(박사), 회계 (Rev. Dr. Gregory Simpson, Treasurer)
리사 그레이 장로, 행정 실무 그룹 소집자 (Elder Lisa Gray, Administrative Working Group Convener)
브랜디 우튼 목사, 연합 사역 실무 그룹 소집자 (Rev. Brandi Wooten, Connectional Ministries Working Group Convener)
애伦 프랭크 목사, 사역 및 선교 실무 그룹 소집자 (Rev. Aaron Frank, Ministry and Mission Working Group Convener)
스테이시 갤러웨이, 사무 행정 서기 (Ms. Stacy Galloway, Office Administrative Clerk)

부록

조직 및 인력 구조

조직 및 인력 구조



대교구 리더

대교구 리더는 동북부 대교구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직원 총책임자(Head of Staff)로서, 전략적 리더십, 영적 지도, 행정적 감독을 제공합니다. 이 역할은 대교구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중간 의회체를 지원하며, 재정 및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에큐메니컬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교단의 모든 수준에서 대교구를 대표하는 책임을 집니다. 대교구 리더는 지속 가능한 사역 실천을 촉진하고 지역 전역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교구 리더는 모든 선교적 기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기

서기는 대교구의 교회법 책임자(ecclesiastical officer)이자 의회 절차 전문가(parliamentarian)로서, 대교구의 사역과 선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법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동을 지원합니다. 서기는 최신판 교단 헌법(Book of Order),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Robert's Rules of Order), 그리고 대교구의 정관 및 상임 규정에 명시된 책임에 따라 서기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서기는 거버넌스, 협력, 보조금 선교 기동을 지원합니다.

재정 매니저

재정 매니저는 대교구의 재정 관행이 정직, 투명성, 신실한 청지기 의식을 반영하도록 책임을 집니다. 주요 업무에는 예산 관리, 현금 흐름, 투자, 대출, 직원 복지, 재정 정책, 회계 절차 감독, 그리고 재정 서기 감독 및 건물 운영 관리가 포함됩니다. 재정 매니저는 재정 및 수탁 책임 관리 아래의 거버넌스 기동에서 핵심 자원으로 섬기며, 수탁 책임 감독과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팀을 지원합니다. 대교구가 새롭게 제시한 비전에 따라, 이 역할은 또한 모든 선교 기동에 재정 및 행정 관련 지원을 제공하며, 재정 및 수탁 책임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통해 대교구가 신실하고 책임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회계

회계는 대교구의 모든 자금과 유가증권에 대한 수탁 책임을 맡아, 재정 활동의 정직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계는 종교 기관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수탁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월별 은행 조정 내역 검토, 계좌 간 이체 승인(투자 계좌 포함), 수립된 재정 정책 준수 여부 확인을 담당합니다. 회계는 재정 및 수탁 책임 관리 영역의 핵심 자원으로 섬기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 기동 아래 재정 및 수탁 책임 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거버넌스와 재정 청지기 사역 간의 정렬을 강화합니다.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행정을 위한 중간 의회체 레지던트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행정을 위한 중간 의회체 레지던트는 2년 풀타임 레지던시로, 중간 의회체 사역에 대한 몰입형 입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형성적 경험을 통해 레지던트는 거버넌스, 행정, 프로그램 조정, 계약 관리, 대교구 내 관계 시스템 등 폭넓은 영역의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직책은 로버트 L. 워싱턴 장학생 프로그램, 초기 사역 연구소(EMI), 커뮤니티 조직 코호트 등 대교구의 대표 프로그램들에 직접 참여하며, 대교구의 새로운 비전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개발에도 기여합니다. 이 레지던시는 대교구의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일부로서, 향후 노회 및 대교구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시루, 영적 기반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의회체 레지던트는 지역 학습 기동과 대교구 전역의 목회자와 교회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는 미디어 홍보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대교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이 역할은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담당하며, 웹사이트, 블로그, 보고서, 뉴스레터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큐레이션합니다. 이 스페셜리스트는 긍정적인 공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기동이 대교구의 사역과 영향력을 전달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코디네이터

보조금 코디네이터는 혁신 보조금, 캠퍼스 사역, 새 복음 공동체(Emerging Gospel Communities) 및 기타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교구의 보조금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선교 기동을 지원합니다. 코디네이터는 지원자들에게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파운더트(Foundant) 시스템을 관리하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보조금 심사 팀을 지원하며, 커뮤니케이션과 보고를 조정합니다. 이 역할은 보조금 선교 기동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기동과 협력하며, 대교구의 혁신, 협평성, 그리고 공동 자원의 신실한 청지기 정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금 개발 인턴

이 인턴십은 신앙 기반 기관 내에서 비영리 모금, 기부자 참여, 재정 청지기 사역에 관한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턴은 대교구 직원 및 리더십과 협력하여, 대교구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자원 개발 전략을 조사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지속 가능한 재원 조성 모델 및 모범 사례 조사, 커뮤니케이션, 호소문, 청지기 자료를 통한 기부자 참여 지원, 보조금 확보를 위한 재원 발굴 및 배경 조사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인턴은 또한 개발 활동을 추적, 보고하는 시스템 설계, 프레젠테이션 및 보고서 작성, 장기적 청지기 사역 및 선교 재원 마련과 관련된 특별 프로젝트 참여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무 행정 서기

이 역할은 사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일정, 서비스, 대교구 프로그램, 정책 및 기타 캘린더 관련 사항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로 제기되는 문의에 응답합니다. 사무 행정 서기는 또한 약속 및 회의 일정을 조율,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제작과 배포에 참여하며, 문서 및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고, 전자 및 물리적 문서 보관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며, 우편 발송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대교구 리더와 서기를 위한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정 서기

재정 서기는 Wurffel-Sills 장학금 및 무이자 학생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 및 상환 업무를 관리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수혜자들과의 서신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재정 매니저와 대교구 리더를 지원합니다. 재정 서기는 재정 관련 문서, 서신, 메모 작성 업무를 보조하며, 대교구 리셉셔니스트의 대체 역할로서 프로그램, 정책, 일정에 관한 문의에 응답하고, 관련 질문을 적절한 직원에게 연결합니다. 추가적인 책임으로는 우편 업무, 특별 프로젝트 및 재정 매니저 또는 대교구 리더가 지정한 과제들을 지원하여, 행정 및 재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포함됩니다.